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 and Conflict-Coping Method on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in the Early Stage of Marital Life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 선 미
부 교수 전 귀 연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Lee, Sun Mi
Associate Professor : Jeon, Gwee Yeon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marital conflict and the conflict-coping method of self and spouse have an e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the early stage of marital lif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132 couples in the area of Taegu and Pohang city.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are marital conflict scale, conflict-coping method scale and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 The data are analysed through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paired t-test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of figuring out couples' marital conflict, husbands and wives are having the highest conflict in the personality factor. The difference of marital conflict between husbands and wives is shown significant in the relative factor.

Secondly, as a result of figuring out couples' conflict-coping method, husbands

and wives use mostly the reasonable behavior and leastly physical aggression. The difference of conflict-coping method between husbands and wives is shown significant in the verbal aggression, adjustment · renunciation and physical aggression.

Thirdly, as a result of figuring out how the marital conflict and the conflict-coping method of self and spouse have an e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the communication factor of the conflict factors, the wives' verbal aggression perceived by husbands, and the reasonable behavior of the self have much e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case of husbands. And the personality factor, sexual factor and role factor of the conflict factors and the husbands' verbal aggression and reasonable behavior perceived by wives have much e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case of wives.

◆ 주요어: 결혼초기,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

I. 서론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인간관계이며(이효재, 1984),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개인의 전 인격이 적나라하게 맞부딪치게 되므로 부부라 할 지라도 당연히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현대의 부부생활은 핵가족내의 상호관계가 대단히 밀접하고 강함으로써 원숙하게 깊이 발전할 수 있는 한편, 그 과정에 있어서 상호기대에 어긋나는데 대한 불만과 좌절감으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 역시 높다(김정옥, 1987). 또한 산업화와 더불어 평등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가치관의 도입으로 여성은 근대적 가치관을 갖게 되었으나 실제 사회제도와 가족내의 가치관은 아직도 전통적인 경향이므로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 역시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더 이상 해결 능력이 없을 때나 극도의 긴장상태에 달했을 때는 이혼으로서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가족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현상이 갈수록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97년 이혼 건수는 9만3171건으로 96

년에 비해 16.9%, 10년전인 88년에 비해서는 무려 127.5%나 증가했다(조선일보, 1999). 특히 동거기간 별 이혼구성비를 살펴보면, 결혼 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89년에 38.9%였으며, 그 뒤 감소하는 경향은 있으나 98년에도 28.5%로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나(통계청, 1998), 결혼 후 5년간이 부부생활의 고비임을 나타냈다. 이는 결혼초기가 성장배경과 경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상호적용해 가는 시기이므로, 그 어느 시기보다 갈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혜경, 1986). 이처럼 결혼초기는 앞으로의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처럼 갈등은 때로는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극한 상황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잠재해 있던 어려움을 표출시켜 이제까지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의 위치와 역할에서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대처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즉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이 건설적이나, 파괴적이냐에 따라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또는 회복되고 재조직되어 가족의 평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송말희, 1990).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결혼생활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모든 가

족연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들(김영자, 1992; 김혜경, 1986; 박선미, 1987; 박영옥, 1986; 이창숙, 1996)은 부부의 갈등요인과 갈등정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갈등대처방식을 다룬 연구들(권오실, 1995; 송말희, 1990; 이미영·박혜인, 1995; 이현주, 1997; 최규련, 1995; 최혜경·노치영, 1994) 역시 갈등대처방식의 유형을 알아보는데 그쳤을 뿐이다. 또한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손정숙(1999), 고현선과 지금수(1995), 김은신(1992) 등의 연구가 드물게나마 이루어졌을 뿐,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 그리고 결혼만족도를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행동 역시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상호작용패턴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갈등대처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 역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연구자들의 관심부족과 연구대상선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부부를 쌍으로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으로 인해 자신의 갈등대처방식만을 살펴보았을 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쌍으로 하여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가 인지하고 있는 갈등정도와 갈등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부부관계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보다 극

소화시키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갈등에 대처하여 부부 각자의 행복한 삶, 만족스런 부부관계, 건전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정도와 부부간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정도와 부부간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과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부갈등의 정의 및 요인

부부는 환경과 경험이 서로 다른 남녀의 결합이므로, 결혼생활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결혼생활의 친밀함, 경쟁, 가변성의 특성은 부부갈등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족관계 역시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해결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갈등의 정도가 한계를 넘을 때는 역시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기능을 한다(이미영·박혜인, 1995).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의 상충되는 기대, 욕구,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겪는 긴장과 갈등이라고 정의한다.

부부갈등요인을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결혼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창숙, 1996; Arond & Pauker, 1987)과 그 외 여러 선행연구들(김영자, 1992; 김재경, 1991; 김혜경, 1986; 박영옥, 1986; Betcher & Macauley, 1990)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한 부부갈등요인이며, 특히 결혼초기 부부갈등에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본 연구자가 판단한 성격요인, 의사소통요인, 성적요인, 역할요인, 경제적요인, 인척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격요인

최근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남편과 아내 모두 성격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곽배희, 1994), 이처럼 현대에는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부갈등을 다룬 선행연구결과(김갑숙, 1991; 김영자, 1992; 박선미, 1987; 박영옥, 1986; 이창숙, 1996), 성격요인이 부부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가 남편에 비해 성격요인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자, 1992; 김혜경, 1986; 송말희, 1990). 그러므로 불행한 결혼이 모두 성격요인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Terman, 1939; 서수경 · 이정덕, 1991에서 재인용).

2) 의사소통요인

오늘날 동등하고 우애적인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부부중심의 핵가족 하에서는 부부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뒷받침해주는 의사소통요인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서수경 · 이정덕, 1991; 왕석순, 1988). 송말희(1990)의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경우 모두 의사소통요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가 남편에 비해 의사소통요인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자, 1992; 김혜경, 1986). 또한 의사소통 기술-결핍 모델에서는 배우자간의 갈등 유발의 원인을 한 배우자나 두 배우자 모두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이라고 보았다(Burleson & Denton, 1997). 그러므로 불행하거나 실패한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실패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Bienvenu, 1978).

3) 성적요인

부부의 성생활은 단순한 성행위의 적용이 아니라 부부간 감정, 애정의 일치도, 욕구의 결합 등을 의미하는 상호결합적인 적용으로서(김효현, 1996), 결혼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창숙(1996)과 김재경(1991) 그리고 김혜경(1986), 박영옥(1986)의 연구에서 성적요인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성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김경신 · 김오남 · 윤상희, 1997), 전체조사대상자중 남성의 26.5%, 여성의 3.6%가 성생활문제를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나(이미영 · 박혜인, 1995)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요인에서 더 큰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내에게도 부부갈등은 성적문제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영옥, 1986), 특히 30대 이후는 여성의 성적 활동이 가장 증가되고 적극적인 시기로 성적 갈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김효현, 1996). 또한 결혼 초기에는 거의 과반수가 남편만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으며(김정원, 1987; 이동원, 1988), 아내의 경우 배우자의 애정과 지지, 부부간의 친밀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승락, 1998).

4) 역할요인

현대사회의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의 변화와 가정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 그리고 역할태도의 변화 등으로 부부간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다. 권오실(1995), 김재경(1991)의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역할문제에서 높은 갈등정도를 나타냈다. 주부의 역할부담은 첫 자녀 출생 후 더욱 증가하게 되며(Tavecchio, Ijzendoorn, Goosscens, & Vergeer, 1984), 역할갈등은 첫 자녀가 미취학 연령인 가족생활주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영, 1981; Schafer & Keith, 1981). 맞벌이 부부의 경우 37.6%는 아내가 전적으로 가사를 수행했으며, 50.0%는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0). 이처럼 여성은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모두 담당하는 이중적인 부담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김양희, 1991). 한편 남편의 경우 부인의 취업이 남편의 직장-가족역할에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수반함으로써 가사참여를 요구하는 부인의 압력, 부인의 내조부족, 의사결정시 부인의 발언권 강화 등의 이유로 갈등을 느끼며, 가사 활동 참여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긴장을 호소하였다(이주희, 1999).

5) 경제적요인

결혼생활에서 돈의 소비방법문제는 갈등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김재경, 1991). 98년 부부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89년에 비해 부부불화, 건강문제로 인한 이혼은 감소한 반면,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은 6.9%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통계청, 1998).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경제적요인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김혜경, 1986; 이미영·박혜인, 1995; Coleman, 1984), 김재경(1991)의 연구에서 갈등의 각 하위 영역별로 재정관리 갈등정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김영자(1992)와 박선미(1987)의 연구에서 경제영역은 각 영역 중에서도 그 정도가 하위순에 머물렀으며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연구들마다 결과가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 비해 경제적요인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김영자, 1992; 김혜경, 1986). 그러나 이와 달리 남편이 아내보다 경제적요인에서 더 큰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권오실, 1995)와 남편과 아내의 갈등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박영옥, 1986)도 있다.

6) 인적요인

결혼초기 부부는 본가 부모와는 변화된 관계의 향상성 성취를 위한 재적응을 요구받으며, 시(처)가 부모와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 과업을 갖는다(이상원, 1993). 김재경(1991)과 김혜경(1986)의 연구에서 인적요인은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박영옥(1986)의 연구에서 배우자 부모와의 문제가 부부갈등에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선미(1987)의 연구에서 역시 시가족 및 친척으로 인한 갈등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척갈등은 대개 며느리와 시댁 또는 동서들과의 갈등이며(한희선, 1991), 특히 고부갈등으로 인해 과반수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1988; 유가효, 1976). 결혼 초기 부부의 시(처)가 부모와의 관계는 본가 부모와의 관계에 비해 그 유대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

러한 경향은 부인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이상원, 199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격요인, 의사소통요인, 성적요인, 역할요인, 경제적요인, 인척요인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각 요인에서 남편과 아내가 인지하고 있는 갈등정도와 부부간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갈등대처방식의 정의 및 유형

Natarius와 Markman(1993)은 결혼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는 부부간의 상이성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상이성을 조정해나가는 방법을 문제로 보았으며, Gottman(1992)은 만일 결혼이 문제해결을 위한 감정이입이나 비방어적인 적극적 경청, 그리고 동의와 승인을 향한 유머감각이 있다면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갈등 그 자체가 결코 결혼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효과적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부정적 행위를 억제하고, 숙고·반성하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Cohen, 1986).

갈등대처방식에 대해 이현주(1997)는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최규련(1995)은 개인이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문제를 관리하고 적응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송말희(1990)는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Chodoff(1964)는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모든 방법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대처방식을 개인이 어떤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갈등대처방식을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Carver와 Scheier(1994)는 부부간의 적응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기준과 문제에 대해 접근적인지 회피적인지로 갈등시의 대처방식을 설명하였다. Rusbult, Johnson과 Morrow(1986)는 부부가 갈등시 문제에 대해 적

극적/소극적인지와 부부관계의 유지에 대해 건설적/파괴적인지를 기준으로 갈등해결전략을 표현형(Voice), 탈출형(Exit), 순종형(Loyalty), 무시형(Neglect)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현주(1997)는 갈등대처방식을 외부도움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회피, 행동표출의 5가지로 분류했다. 권오실(1995)은 이성적대처, 외부도움요청, 감정표현, 회피, 순응 및 체념, 기분전환, 의견강요의 7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고현선과 지금수(1995)는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대처유형을 양보형, 소극적형, 외면형, 공격형, 비난형으로,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대처유형을 이성형, 소극적형, 유아형, 공격형, 변덕형으로 명명하였고, 최혜경과 노치영(1994)은 우리나라 기혼남성의 부부간 문제해결행동유형을 권위적, 이성적, 수동적, 부정적 문제해결행동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기혼여성들은 적극적, 방어적, 수동적, 다양한 문제해결행동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권오실(1995)의 연구에서 남편의 경우 이성적대처, 기분전환, 회피, 감정표현, 의견강요, 순응 및 체념, 외부도움요청의 순으로, 아내의 경우 이성적대처, 감정표현, 기분전환, 의견강요, 외부도움요청, 회피, 순응 및 체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현주(1997)와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도 역시 남편과 아내 모두 이성적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편은 아내보다 행동표출(이현주, 1997; 최규련, 1994), 이성적대처와 회피, 아내는 남편보다 외부도움요청과 감정표현, 기분전환, 의견강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오실, 1995). 또한 남편은 문제해결방안 모색을, 아내는 구체적 행동을 위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이미영·박혜인, 1995), 문제해결유형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보다 무시형이 많았고, 아내는 남편보다 표현형, 순종형이 더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편은 부부관계에서 더 많은 독립성을 원하고 갈등시 후퇴적이며, 아내는 부부관계에서 더 많은 친밀성을 원하고 갈등시 요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usbult et als., 1986). 남편은 아내가 갈등시에 소

극적이거나 외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공격형이거나 비난형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난형의 경우는 아내에게서만 나타나서 아내가 남편보다 갈등시에 더 언어적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 있다(고현선·지금수, 1995).

연구자들마다 갈등대처방식을 다양하게 분류하였으나 갈등대처방식을 가능한 자세하게 분류하는 것이 부부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갈등대처방식을 알 수 있고,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후 부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최근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현주(1997)와 권오실(1995)의 연구가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척도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중복되거나 분류가 모호한 점이 있었으므로 갈등대처방식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도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척도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갈등대처방식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두 연구자의 척도에서 분명하게 중복된 것을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문항을 포함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증한 후 6가지 갈등대처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본 연구에서 분류한 갈등대처방식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논의하거나 의견을 타협하는 등의 이성적대처, 친구나 친척 등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는 외부도움요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등의 회피, 상대방에게 비난, 욕설, 헐박 등을 사용하는 언어적공격,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공격,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참고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순응 및 체념의 6가지 방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과 마찬가지로 갈등대처방식 역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대처방식의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각 유형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정도와 부부간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3.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

1)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규련, 1995).

의사소통요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갈등정도가 낮은 집단은 결혼만족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 갈등정도가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김재경, 1991). 또한 의사소통불안 의식과 결혼만족변인은 부적으로 상당히 높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생활에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만족스런 부부관계의 유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왕석순, 1988).

성적요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적요인에서의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김은신, 1992), 아내의 경우 남편에 비해 부부관계(애정 및 성적요인)에서의 갈등정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재경, 1991). 남편과 아내의 건강한 결혼생활(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이 모두 높은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인들은 부부간의 대화와 부부간의 애정관계 그리고 부부의 성생활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의 성생활 만족은 결혼생활만족과 건강한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송정아, 1995), 활성적 결혼의 부부들은 성생활을 그들의 전반적인 상호관계 유지와 그들이 지향하는 역동적인 친밀감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요인으로 보았다(Ammoms & Stinnett, 1980).

역할요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갈등의 정도가 낮은 집단의 결혼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의 정도가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이 낮게 나타났다(김재경, 1991). 가족생활주기가 초기일수록(김정원, 1987), 비슷한 성역할 태도를 공유한 부부가 자신들의 결혼에 더 만족하였으며,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최규련, 1984). 배우자와 부부역할을 공평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클수

록, 배우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리고 역할긴장이 낮을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숙, 1990; 이정연, 1987).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경우 부인의 직장생활만족도, 부인의 경우 남편의 가사조력도 등 상대방의 협조나 태도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경신·김오남, 1996). Nyc와 Mclaughlin(1976)도 역시 자신에 대한 역할평가와 배우자에 대한 역할평가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에 대한 역할평가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직업과 가정생활에서의 역할갈등은 남성들의 결혼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oydanoff, 1989).

경제적요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적요인에서의 갈등정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경, 1991). 그리고 주관적으로 인지한 가정경제안정도가 결혼만족도에 강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주택이 자가일수록, 친정과 시댁 모두와 친밀할수록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빈·고보선, 1995). 그리고 가정의 재정지출에 대한 부부의 일치정도 또한 결혼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 Williams, 1987).

인척요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척관계 갈등정도가 아주 낮은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인척관계 갈등정도가 아주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다(김재경, 1991). 이동원(1984)은 주부의 시가 및 친정과의 관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련을 살펴본 결과, 시가와의 상호작용빈도가 결혼만족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처가와와의 전화연락에 따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시가와와의 전화연락과 남편의 처가와와의 전화연락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세대와의 전화연락의 빈도는 부모세대와의 질적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여 결혼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이상원, 199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의 정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련한 연구들(김경신·김오남, 1996; 김재경, 1991; 손정숙, 1999)에서 성격요인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성격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요인, 성적요인, 역할요인, 경제적요인, 인척요인과 함께 성격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갈등대처방식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신, 1992). 이는 갈등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역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ottman과 Krokoff(1989)는 갈등으로부터의 회피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Bahr(1989)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갈등에 직면하는 것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며 갈등을 피하는 것은 결혼만족도를 낮추고 있다고 하면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갈등대처방법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청, 동정심, 융통성, 타협에의 의지 등을 들고 있고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갈등대처방법으로 부인, 전이, 약속취소, 비난, 공격, 부정적 상호관계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로 돌릴 때 갈등대처정도와 결혼만족도가 모두 낮았으며,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를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갈등을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느낄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Lefcourt, Holmes, Ware & Saleh, 1986).

Heavey, Layne와 Christensen(1993)은 남편이 요구형이고 아내가 후퇴형인 것이 그 반대인 경우보다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Kurdek(1995)은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부집단에서 아내는 대결형을, 남편은 후퇴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Gottman과 Krokoff(1989)에 의하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부부의 경우 남편은 갈등정도가 낮은 상황의 대화에서, 아내는 갈등정도가

높은 상황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였으나,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최규련(1995)은 반응적 대처방안을 사용할수록 결혼만족이 감소되고, 적극적 대처방안을 사용할수록 결혼만족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부인의 경우 위부도움 요청을 대처방안으로 많이 사용할수록, 회피적 대처방안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남편의 경우에는 회피와 행동표출적 대처방안을 적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에서 남편이 이성형일 때 부인의 유형과 관련없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부 모두 요구형인 경우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갈등대처유형이 양보형인 경우가 외면형일때보다, 또 외면형일때가 공격형이거나 비난형인 경우보다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이 이성형인 경우에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변덕형일 때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파악하였으며, 갈등대처방식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갈등대처방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과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결혼생활에서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총 132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배경변인	구 분	남 편	아 내	배경변인	구 분	남편·아내		
		N (%)	N (%)			N (%)		
연령	21 ~ 25	2 (1.5)	7 (5.3)	결혼지속 기간	1년미만	27 (20.5)		
	26 ~ 30	42 (31.8)	86 (65.2)		1 ~ 2년미만	25 (18.9)		
	31 ~ 35	70 (53.0)	35 (26.5)		2 ~ 3년미만	22 (16.7)		
	36 ~ 40	17 (12.9)	4 (3.0)		3 ~ 4년미만	19 (14.4)		
	무응답	1 (0.8)	0		4 ~ 5년미만	13 (9.8)		
결혼연령	21 ~ 25	10 (7.6)	41 (31.1)	결혼전 교제기간	5년 6개월미만	26 (19.7)		
	26 ~ 30	85 (64.4)	84 (63.6)		1년미만	39 (29.6)		
	31 ~ 35	32 (24.2)	6 (4.5)		1 ~ 2년미만	32 (24.2)		
	36 ~ 40	5 (3.8)	0		2 ~ 4년미만	37 (28.0)		
	무응답	0	1 (0.8)		4 ~ 6년미만	13 (9.8)		
종교	기독교	25 (18.9)	35 (26.5)	결혼형태	6년이상	10 (7.6)		
	천주교	10 (7.6)	13 (9.8)		무응답	1 (0.8)		
	불 교	33 (25.0)	34 (25.8)		연애형	91 (68.9)		
	종교없음	63 (47.7)	49 (37.1)				중매형	17 (12.9)
	무응답	1 (0.8)	1 (0.8)				절충형	
학력	중학교졸업	0	0	자녀수	없음	40 (30.3)		
	고등학교졸업	15 (11.4)	32 (24.2)		1명	62 (47.0)		
	대학교졸업	100 (75.8)	88 (66.7)		2명	28 (21.2)		
	대학원이상	16 (12.1)	12 (9.1)		3명	2 (1.5)		
	무응답	1 (0.8)	0		시부모 동거여부	동거	14 (10.6)	
직업	전업주부	0	65 (49.2)	비동거		118 (89.4)		
	전문직	31 (23.5)	33 (25.0)				친정부모 동거여부	5 (3.8)
	관리직	12 (9.1)	3 (2.3)	비동거		127 (96.2)		
	사무직	57 (43.2)	18 (13.6)				월평균 수입	100만원이하
	서비스직	6 (4.5)	2 (1.5)	101 ~ 200만원	66 (50.0)			
	판매직	6 (4.5)	2 (1.5)	201 ~ 300만원	31 (23.5)			
	생산직	12 (9.1)	0	301 ~ 400만원	12 (9.1)			
	농어민종사자	2 (1.5)	0	401 ~ 500만원	5 (3.8)			
	학생	3 (2.3)	7 (5.3)	500만원이상	3 (2.3)			
	무직	0	0	무응답	4 (3.0)			
무응답	3 (2.3)	2 (1.5)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와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1) 부부갈등 척도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창숙(1996), 김재경(1991), 박선미(1987), 박영옥(1986), 김혜경(1986)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 후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과, 성격요인, 의사소통요인, 성적요인, 역할요인, 경제적요인, 인척요인의 6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남편의 부부갈등 척도는 총 33문항이며 하위요인별 Cronbach α 는 .73~.91

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부부갈등척도에는 인척요인에 남편용보다 1문항이 더 많아 아내의 부부갈등 척도는 총 34문항이며 하위요인별 Cronbach α 는 .72~.94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2) 갈등대처방식 척도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현주(1997), 권오실(1995)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 후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과, 이성적대처, 외부도움요청, 회피, 언어적공격, 신체적공격, 순응 및 체념의 6가지로 구성하였다.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총 32문항이며 하위요인별 Cronbach α 는 .77~.89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총 32문항이며 하위요인별 Cronbach α 는 .74~.95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총 36문항이며 하위요인별 Cronbach α 는 .80~.93으로 나타났으며,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총 33문항이며 하위요인별 Cronbach α 는 .82~.94로 나타났다. 갈등대처방식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갈등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결혼만족도 척도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umm과 그의 동료들(1986)이 개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Cronbach α 는 .94~.95로 나타났다. KMSS는 7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자료의 수집절차

본 연구는 2000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에 걸쳐 대구와 포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초기 만 5년

6개월미만의 부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결혼지속년수를 고려하여 사회교육원, 어린이집, 교회 등의 기관 및 연구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직접·간접으로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총 720부(360쌍)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80부(240쌍)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남편 혹은 아내의 부실기재 및 대상의 질문지의 경우는 그 부부(남편과 아내)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총 264부(132쌍)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남편의 부부갈등과 아내의 부부갈등,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과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정도와 부부간 차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갈등요인별 남편과 아내의 갈등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요인별 갈등정도는 남편의 경우 성격요인(1.98), 역할요인(1.57), 의사소통요인(1.54), 성적요인(1.51), 경제적으로인(1.44), 인척요인(1.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경우 성격요인(1.97), 인척요인(1.72), 역할요인

〈표 2〉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정도와 부부간 차이

변인	남편		아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격요인	1.98	.81	1.97	.76	.108
의사소통요인	1.54	.69	1.56	.74	-.265
성적요인	1.51	.64	1.49	.74	.273
역할요인	1.57	.71	1.69	.76	-1.659
경제적요인	1.44	.58	1.47	.61	-.494
인척요인	1.38	.63	1.72	.76	-5.079***

*p<.05 **p<.01 ***p<.001

(1.69), 의사소통요인(1.56), 성적요인(1.49), 경제적요인(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갈등요인별 갈등정도가 전반적으로 5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1.38~1.98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특별히 부부갈등을 호소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과 〈표 1〉의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편이 전체 대상자의 87.9%, 아내의 경우는 75.8%에 이르는 고학력과 직업이 남편의 경우 전문직과 관리직이 32.6%, 아내는 27.8%로 높은 직업 안정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편과 아내 모두 성격요인에서 가장 높은 갈등정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선행연구(김갑숙, 1991; 김영자, 1992; 박선미, 1987; 박영옥, 1986; 이창숙, 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 최근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남편과 아내 모두 성격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곽배희, 1994), 이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도구적 측면보다 정서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Lewis & Spanier, 1979) 오늘날 부부중심의 핵가족화에서 성격요인이 부부의 결혼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 경제적요인에 대한 갈등정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김영자, 1992; 박선미, 198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경제적요인이 부부 불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이 보인다. 이는 결혼초기가 가계소득에 비해 비교적 지출이 적은 시기이며, 또한 본 연

구대상자의 거의 절반이 취업주부이므로 경제적인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월평균 수입이 101-200만원이 50.0%, 201만원 이상이 38.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경제적요인에서의 갈등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요인별 갈등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척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5.079$, $p<.001$)가 나타났다. 즉, 아내가 남편에 비해 인척요인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권오실, 1995; 김영자, 1992; 김혜경, 1986; 박영옥, 1986)의 결과와 일치한다.

인척요인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내의 경우 '시댁과 친정의 가풍 및 생활습관이 매우 다른 것에 대해 갈등을 느낀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생활에서 시댁과 친정의 가풍 및 생활습관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경애와 조병은(1994)의 연구에서 가족배경, 종교, 태도, 가치관 등이 유사한 동질혼의 경우가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시부모 및 친정부모와의 동거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인척요인에서의 갈등이 남편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현대가족이 핵가족화되고 부부중심으로 변화한다고는 하지만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관념이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으며, 사위에게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에 비해 인척요인에서의 갈등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요인 중 인척요인에서의 갈등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가에 대한 아내의 경우에 비해 남편의 처가에 대한 부담이나 의무적인 제약이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정도와 부부간 차이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갈등대처방식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한 연구결과 부부갈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부부가 신체적공격을 사용할 만큼의 심각한 갈등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언어적공격($t=-4.426, p<.001$), 신체적공격($t=-1.833, p<.05$), 순응 및 체념($t=4.31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에 비해 언어적공격과 신체적공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아내보다 순응 및 체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남편에 비해 언어적공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에서 비난형의 경우는 아내에게서만 나타나

<표 3>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정도와 부부간 차이

변인	남편		아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이성적대처	3.75	.61	3.71	.63	.652
외부도움요청	2.71	.86	2.83	.81	-1.340
회피	1.83	.77	1.74	.69	1.169
언어적공격	1.59	.61	1.94	.85	-4.426***
신체적공격	1.30	.47	1.43	.71	-1.833*
순응 및 체념	2.46	.74	2.07	.73	4.318***

* $p<.05$ ** $p<.01$ *** $p<.001$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정도는 남편의 경우 이성적대처(3.75), 외부도움요청(2.71), 순응 및 체념(2.46), 회피(1.83), 언어적공격(1.59), 신체적공격(1.3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경우 이성적대처(3.71), 외부도움요청(2.83), 순응 및 체념(2.07), 언어적공격(1.94), 회피(1.74), 신체적공격(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모두 이성적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권오실, 1995; 이현주, 1997; 최규련, 1994)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 신체적공격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현주(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본 연구가 폭력 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또

서 아내가 남편보다 갈등시 더 언어적으로 대처한다고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아내의 경우 남편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표현적이며, 남편의 경우 좀 더 폐쇄적이고 덜 표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aukins, 1976), 왕석순(1988)의 연구에서 아내의 경우 남편의 이야기를 기억해 두었다가 남편에게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내가 남편에 비해 신체적공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현주(1997)와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는 행동표출은 남편과 아내 모두 낮은 편이나 남편이 아내보다 행동표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아내가 갈등대처방식 중 신체적공격을 사

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아내의 신체적공격은 직접적이고 심각한 것이기 보다 위협하는 수준의 가벼운 것으로 보이며, 단지 남편에 비해 신체적공격을 좀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의 경우 아내에 비해 순응 및 체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은 갈등시 후퇴적이라는 Rusbult와 그의 동료들(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진출의 증가, 그리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남성들의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과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과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

son 적률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는 .7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편의 경우 2.34, 아내의 경우 1.86으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의 경우 의사소통요인($\beta = -.466$)과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언어적공격($\beta = -.274$) 그리고 자신의 이성적대처($\beta = .176$)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은 의사소통요인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아내가 언어적공격을 적게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이 이성적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인지한 부부갈등과 자신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이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46.2%이다.

아내의 경우 성격요인($\beta = -.224$)과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언어적공격($\beta = -.314$), 성적요인($\beta = -.217$),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이성적대처($\beta = .184$) 그리고 역할요인($\beta = -.162$)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는 성격요인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남편이 언어적공격을 적게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성적요인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남편

<표 4>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과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남편의 결혼만족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아내의 결혼만족도		
	B	β	R ² 증가량		B	β	R ² 증가량
의사소통요인	-.683	-.466***	.346	성격요인	-.379	-.224**	.294
아내의 언어적공격	-.339	-.274***	.434	남편의 언어적공격	-.465	-.314***	.420
자신의 이성적대처	.292	.176*	.462	성적요인	-.379	-.217***	.481
(상수)	6.337			남편의 이성적대처	.313	.184*	.511
				역할요인	-.276	-.162*	.530
				(상수)	6.936		
R ²	.462			R ²	.530		
F값	6.582*			F값	5.094*		

*p<.05 **p<.01 ***p<.001

이 이성적대처를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역할요인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과 자신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이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53.0%이다.

남편의 경우 의사소통요인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곽치화, 1985; 송정아, 1995; 왕석순, 1988; 이정은, 1999; 임승락, 1998)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신이 이성적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이 이성형일 때 부인의 유형과 관련없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내의 경우 성격요인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격요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논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성격이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특성이므로 생활환경이나 성장배경이 서로 다른 부부관계에서 매우 주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비추어 부부갈등정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김재경, 1991; 손정숙, 1999; 최규련, 1994)와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 중 성격요인에서의 갈등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성격요인에서의 갈등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성격요인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적갈등이 결혼초기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은신(1992), 그리고 남편의 경우 높은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대화인데 반해, 아내의 경우 부부의 애정관계 및 성생활이 대화나 의사결정에 비해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난 송정아(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곽배희(1994)의 연구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중 성적불만의 경우 남자의 경우 1.5%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 3.4%로 나

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의 경우 30대 이후는 성적활동이 가장 증가되고 적극적인 시기이며(김효현, 1996),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내의 경우 대인관계가 가족들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특히 남편과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성생활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이성적대처를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이 이성형인 경우에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역할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영표(1990), 김효숙(1988)의 연구에서처럼 현대사회의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의 변화와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 그리고 역할태도의 변화 등의 사회적, 개인적 변화로 인해 역할갈등이 결혼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통계청(2000) 자료와 김양희(199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성이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여성이 모두 담당하는 이중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손정숙(1999)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아내의 역할갈등은 첫 자녀 출생후 주부의 가사역할 및 자녀양육 역할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는 관계로(Tavecchio et als., 1984) 첫 자녀가 미취학 연령인 가족생활주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Schafer & Keith, 1981; 장혜영, 1981), 결혼초기에 역할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초기 취업한 아내의 경우 다중역할수행으로 인한 역할갈등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가 언어적공격을 적게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이 인지한 부인의 비난형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대구와 포항시에 거주하는 결혼한지 만 5년 6개월미만의 부부를 쌍으로 하였으며, 총 264명(132쌍)이었다.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부부갈등은 성격요인, 의사소통요인, 성적요인, 역할요인, 경제적요인, 인적요인의 6가지로 분류하여 요인분석한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갈등대처방식은 이성적대처, 외부도움요청, 회피, 언어적공격, 신체적공격, 순응 및 체념의 6가지로 분류하여 요인분석한 갈등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KMSS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는 빈도 및 백분율, 요인분석, Cronbach's α ,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정도와 부부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성격요인에서 가장 높은 갈등정도를 나타냈으며, 아내가 남편에 비해 인적요인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늘날 부부 중심의 핵가족하에서 성격요인이 부부의 결혼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아직까지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관념으로 인해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강조하고, 결혼 후에도 부모의 간섭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정도와 부부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이성적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신체적공격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내의 경우 남편에 비해 언어적공격과 신체적공격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남편의 경우 아내에 비해 순응 및 체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폭력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부부는 갈등시 이성적대처와 외부도움요청 등 긍정적인 측면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며,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진출의 증가, 그리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 남성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과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경우 의사소통요인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아내가 언어적공격을 적게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이 이성적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경우 성격요인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남편이 언어적공격을 적게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성적요인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남편이 이성적대처를 많이 사용한다고 인지할수록, 역할요인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부부관계를 위해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만을 내세우기 보다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모두 대화시 배우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반응하며, 언어의 선택에 신경을 쓰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갈등시 남편과 아내 모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 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결혼 후 만 5년 6개월미만의 결혼 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갈등정도를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결과 결혼 초기 부부갈등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결혼 초기부부의 일반적인 경향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에 비해 고학력이나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으며 또한 다른 가족생활주기에 있는 부부의 갈등정도를 동시에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다른 가족생활주기에서의 부부갈등정도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표본 선정과 종단 연구를 통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과 자신과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사소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부부의 갈등시 의사소통패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부부관계는 상호작용과정이므로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배우자의 행동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 역시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상호작용패턴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부부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다룬 부부갈등이나 갈등대처방식에 대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접수일 : 2001년 7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8월 27일

【참 고 문 헌】

- 고정자(1988). 한국 도시 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현선·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곽배희(1994). 상담소 창구를 통해 본 가정문제 진단. 전병재 외 공저. 위기에 선 가족: 한국 가족의 변화와 전망. 서울: 다산출판사.
- 곽치화(1985).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오실(1995). 부부간의 갈등정도와 갈등관리방법과의 관계분석-학동기 이전 자녀를 둔 부부들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신·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 김경신·김오남·윤상희(1997). 미혼 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 대한가정학회지 35(3), 15-30.
- 김양희(1991). 여성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여성연구.
- 김영자(1992). 도시지역주민이 경험한 부부간의 갈등요인·갈등정도·정신건강상대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신(1992). 결혼 초기 주부의 역할 갈등 및 갈등 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경(1991).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옥(1987). 결혼에 대한 기대와 태도. 한국여성개발원, 9-34.
- 김정원(198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적용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핵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경(1986). 결혼 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효숙(1988). 도시 부부의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이

-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효현(1996). 성생활 만족도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문영표(1990). 도시 부부의 성역할 태도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선미(1987). 부부간의 갈등요인에 관한 고찰.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영옥(198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수경 · 이정덕(1991). 부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존감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9(2), 199-215.
- 손정숙(1999). 결혼초기 무자녀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 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7.
- 송정아(1995). 한국 도시부부의 건강한 결혼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69-78.
- 왕석순(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 불안의식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가효(1976). 한국 도시가족의 고부갈등의 실태와 전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경애 · 조병은(1994). 도시부부의 배우자 선택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대한가정학회지 32(2), 129-144.
- 이동원(1988). 도시 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동원(1984). 도시 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4, 7-36. 이화여자대학교.
- 이미영 · 박혜인(1995). 전화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 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1), 141-154.
- 이상원(1993). 결혼초기 부부의 부모와의 유대 및 결혼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정숙(1990). 기혼여교사의 가정생활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인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정연(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 관련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05-117.
- 이주희(1999). 취업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및 성역할 정체감의 중재효과. 숙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창숙(1996). 도시부부들의 사회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결혼 5년미만의 부부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01-214.
- 이현주(1997). 부부의 자아분화정도와 갈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효재(1984).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 임승탁(1998). 부부간 의사소통행동과 결혼생활만족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정민 · 고보선(1995). 도시 신혼기 가계의 가정경제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2), 1-18.
- 장혜영(1981).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서울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논문집 2, 399-413.
-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혜경 · 노치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 통계청(1998). 1998년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200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한희선(1991).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서울시 시모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Ammons, P. & Stinnett, N.(1980). The vital marriage:

- A closer look. *Family relations* 29, 37-42.
- Aron, M. & Pauker, S. L.(1987). *From the first year of marriage*. N.Y.: Warner Books.
- Bahr, S. J.(1989). *Family interaction*.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Berry, R. & Williams, F.(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07-116.
- Burleson, B. R., & Denton, W. H.(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marital satisfaction: Some moderating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884-902.
- Carver, C. S. & Scheier, M. F.(1994). Situational coping and coping disposition in a stressful trans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84-195.
- Chodoff, P.(1964). Stress, defenses and coping behavior observation in parents of children with malignant disea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
- Coleman, J. C.(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The Bobbs-Merrill.
- Gottman, J. M. & Krokoff, L. J.(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Gottman, J.(1992). *Why marriage succeed or fail*. Simon and Schuster.
- Heavey, C. L. & Layne, C. &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 Kurdek, L. K.(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1), 153-164.
- Lewis, R. A. & Spanier, G. 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R., Hill, R., Nye, F. I. & Reiss, I. 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N. Y.: The Free Press.
- Miller, P. C., Lefcourt, H. M., Holmes, J. G., Ware, E. E. & Saleh W. E.(1986). Marital locus of control and marit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161-169.
- Natarius, C. & Markman, H.(1993). *We can work it out: making sense of marital conflict*. Putnam.
- Nye, F. I. and McLaughlin, S. D.(1976). *Role Competenc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F. I. Nye (ed.)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sage publication, 190.
- Rusbult, C. E. & Johnson, D. J. & Morrow, G. D. (1986). Impact of couple patterns of problem solving on distress and nondistress in dating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744-753.
- Schafer, R. B., Keith, P. M.(1981). Equity in Marital Rol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359-367.
- Schumm, W. R., Paff-Gergen, L. A., Hatch, R. C., Obiorah, F. C., Copeland, J. M., Meens, L. D., and Bugaighis, M. A.(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Tavecchio, L. W. C., Van Ijzendoorn, M. H., Goossens, F. A. and Vergeer, M. M.(1984). The Division of Labor in Dutch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231-243.
- Voydanoff, P. & Kelly, R. F.(1989).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1), 881-892.